

“전쟁 없어야...” 예술가들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홍성담·고근호·전정호 등 30여명 참여
5·18민주광장서 드로잉 퍼포먼스 진행
메이홀서 작품 전시...시민들 참여 가능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예술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고만하며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답을 찾아간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민 이들은 ‘80년 오월’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 예술가들이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전시는 서울, 경기를 이어지며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전쟁 반대’를 외치는 작가들이 뭉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작가들은 6일 오후 5·18민주광장에 모여 ‘미술행동’에 나섰다. 작가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피켓과 작품을 들었으며 드로잉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전쟁반대시민연대, 생명평화미술행동, 메이홀&이미진이 함께 진행한 행사에는 홍성담·고근호·전정호·노정숙·한희원·김해성·김화순·박태규·서동환·주홍·김우성·이광금·임의진 작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최병수·권계영·성효숙·김선우·햇살·김은·김현자 작가 등 외지 작가들이 함께 힘을 보탰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전시를 통해 인연을 맺었던 작가들로 오월 민주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까이 참여한 이들도.

작가들의 작품은 6일부터 오는 5월초까지 광주정신 메이홀(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1) 2층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로 맞잡은 손, 자유롭



전쟁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회가 오는 5월까지 광주 메이홀에서 열린다.

<메이홀 제공>

게 날아가는 새 등을 통해 평화의 연대를 노래하고 죽은 자를 추모하며, 전쟁광 푸틴을 비판하는 작품들이다. 현장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작가들은 작품을 보내 평화를 기원했다.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가 이어지는 동안 전쟁 반대,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담은 작품을 수

시로 걸 수 있으며 시민들도 누구나 그림이나 손글씨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주홍 작가는 “오월 당시 햇살을 들었던 민주광장에서 작가들이 모여 행동에 나섰다”며 “시민들이 쓴 손글씨 한 줄 한 줄이 서로 연대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문의 010-6791-80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서연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10일 빛고을전수관

광주 서구(청사 서대석)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임서연(사진) 판소리 발표회 ‘강산제 심청가’ 공연을 연다. 10일 오후 6시 빛고을전수관.

이날 무대에 오르는 소리꾼 임서연은 군산 출신으로 13세에 판소리에 입문했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했고 2005년 전남도립국악단에



에 입단해 활동 중이다. 최난수 명창에게 ‘흥보가’와 ‘수궁가’를, 전인삼 명창에게 ‘춘향가’를 박춘맹 명창에게는 ‘강산제 심청가’를 사사했다.

강산제는 서면제 창시자로 알려진 박유전(1835-1906) 선생의 초창기 소리로 박유전 선생이 만년에 여생을 보낸 보성의 강산마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서면제와 마찬가지로 애절하고 구성진 가락이 특징이다.

이날 임서연은 ‘샷바느질 대목’부터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까지를 선보인다. 심청의 성장 과정을 비롯해 임당수로 향하는 심청의 안타까운 심정에 이르기까지를 2시간에 걸쳐 들려줄 예정이다. 이날 함께할 고수로는 제36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천음이 무대에 오른다.

선착순 50명 관람(무료).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남농(南農) 허건’

전남도립미술관 구술채록 발간

지역에 거점을 둔 공립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 예술자 산의 아카이빙이다.

지난해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지역 미술사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지역작가와 전남미술에 대한 연구자료 구축을 위한 구술채록 발간을 기획했다.

전남미술과 지역작가에 대한 연구자료 확보, 남도 미술의 정체성 확립 및 미술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프로젝트다. 구술채록은 전남 지역작가 중 1명을 선정, 작가와 주변 인물의 진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작가의 생애 및 작품세계 등 전체적인 일대기 다룬다.

미술관이 선정한 첫 번째 인물은 진도 출신 ‘남농(南農) 허건(1908-1987)’이다. 미술관은 지난해 개관특별전으로 ‘남농 허건의 작품세계를 조망한 전시’를 기획했다.

조선 후기부터 3대째 화맥을 이어온 남종화의 산증인인 남농은 조선 시대 말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친손자이자 미산 허형의 넷째 아들이다. 남농은 생애 대부분을 목포에서 보냈으며 부친으로부터 그림을 익힌 후 중년에는 남농 특유의 갈필법을 사용한 ‘신남화’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했다.

이번 구술채록에는 생전 남농이 지녔던 철학과 사상, 그림을 대하는 자세, 제자에게 전한 가르침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실렸다. 구술에는 사위 하철경 화백, 딸 허기식 여사, 장손 허진 교수, 손자 허재, 제자 박항환 화백 등이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농 허건

‘봄날, 마음의 풍경’

광주신세계갤러리, 29일까지 기획전

‘마음 속, 풍경으로의 초대.’

광주신세계갤러리가 봄을 맞아 신춘 기획전을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마음의 생태학 II : 말하는 풍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열렸던 ‘21년 신춘기획전-마음의 생태학’의 연계 전시로 자연 풍경 이미지를 자신만의 경험과 사유로 풀어낸 사진과 회화 작품 40여점을 만나는 기획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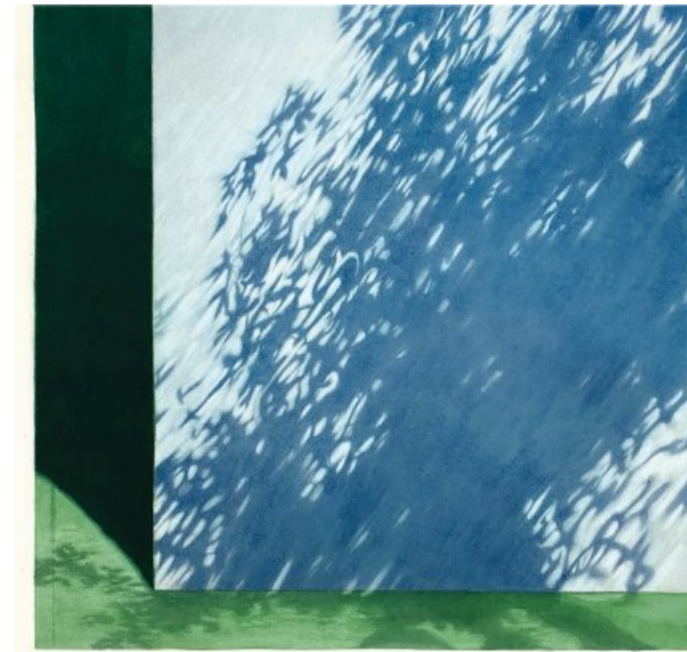
신세계갤러리는 이번 전시 6명의 작가를 초청했다. 작가들은 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듯 눈앞의 풍경을 해석하고 재조합한 기록을 캔버스에 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 흘러가는 시간의 흔적, 사라져가는 삶의 풍경, 일상에서 찾는 정신적 여유 등이 모두 소재가 됐다. 기억에 남겨진 일상의 이미지와 내면에 담긴 감정에서 비롯된 상상은 작가만의 주관적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작품으로 구현됐다.

홍인숙 작가의 작품은 글씨처럼도, 그림처럼도 보인다. ‘글자풍경-싸랑’은 아름다운 꽃과 새, 어항 속 물고기가 어우러져 ‘글자’를 만들어낸 작품으로 삶을 위로하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쇼윈도를 가득 채운 최지아의 드로잉 역시 쉽 없이 돌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충실함과 순수함을 보여준다.

외할머니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시작된 박상미의 자연에 대한 사유는 기억의 기록이자 우리 곁을 스쳐 흘러가는 한순간을 포착하고 있으며 하루의 어느 순간을 잡아낸 박윤지의 회화는 빛이 만들어내는 순간을 수집,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진민욱은 상상 속의 편집된 풍경을 통해 산책 중 만나는 바람과 새소리, 나뭇가지와 돌 등 천천히 걷는 중에 느끼는 오감체험을 선사하며 임수범은 계속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세상에 던져진 자신의 모습에 빔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전시 서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자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안에 담긴 추억과 사연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작품과 함께 생동하는 새로운 계절의 따뜻한 에너지를 마음 가득 채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윤지작 '2_14pm'



진민욱 작 'Stroll & see'

전남대 이용식 교수

한국공연문화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 이용식(사진) 교수가 최근 한국공연문화학회장에 취임했다. 이용식 교수(국악학과)는 최근 열린 한국공연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돼 이날 취임했다.

한국공연문화학회는 공연문화 관련 문학, 민속학, 인류학, 공연학, 음악학, 무용학, 연극학, 영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통섭학문을 추구하는 학회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공연문화연구’를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전남대 교수회 부회장 겸 교수평의회 이사, 광주시 문화재 위원,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 한국 대표이사, 한국민요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한국국악학회 편집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하와이대에서 음악인류학 전공으로 음악학박사를 취득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바람길·장마·우다방... 지난한 일상

김정순 시인 ‘달빛을 훔쳐 허기를 채우다’ 펴내

담양 출신 김정순 시인이 첫 시집 ‘달빛을 훔쳐 허기를 채우다’(시와문화)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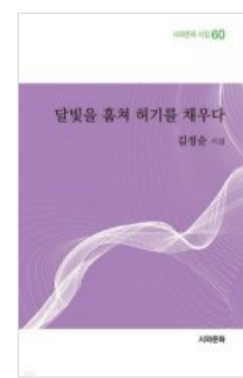
창작집에는 ‘바람길’, ‘통증’, ‘장마’, ‘충장로 우다방’, ‘백’, ‘마음이 만나는 나이’,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 등 간결한 서정을 매개로 한 60여 편이 수록돼 있다. 각각의 시들은 시인의 곁에 온 인고와 슬픔을 배면에 깔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승화의 길을 모색했던 지난한 일상을 담고 있다.

시인은 불혹을 넘긴 나이에 문예창작과에 입학해 시 공부를 할 만큼 자신의 삶을 향한 의지가 굳건하다. 가부장제 그늘에 빛받지 않으면서 시작 같은 세상을 견뎌낸 시인의 삶은 한 편의 시를 담았다. “가시 박히고/ 빨간 연어/ 벵처럼 느껴질 때/ 풍선의 바람 빠듯/ 마음의 쪽문을 여는 표현에서 시인이 걸어왔던 길과 지향점을 보여

준다. 또한 ‘발길에 구겨진 이력서로/ 한적한 변방에 밀려날수록// 밟혀 더 단단해지는/ 꽃의 속수가 길어’지는 것과 같은 심상 또한 시인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박용구 시인은 “곡진한 서정과 명징한 이미지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마음의 지도를 설득력있게 그려낸 시집”이라고 평한다. 고재중 시인은 “세속적인 삶과 시적인 삶의 간극이 말의 간극을 낳는다”며 “‘결코 가질 수 없는 투명한 빛’ 같은 시에 닿기 위해 분투하는 김정순이 아름답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시인은 시 창작과 아울러 현재 광주영화인협회 배운분과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봉사활동 참여 단체 모집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 할 단체 및 청소년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변과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시간이다.

문화 예술, 스포츠, 상담,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광주시 거주·재학중인 만 9세 ~ 24세 청소년이다. 코로나19를 대응해 대면, 비대면, 혼합형(대면+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의 062-233-722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